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성령강림후 열세번째 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열세번째 주일입니다.

2. 후레즈노 교회 주중 사역안내-이번주는 영성훈련 관계로 모임이 없습니다.

중보기도회: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예배당

심방전토팀: 수요일 오전 10시 교회 예배당

토요새벽예배: 매주 토요일에 집중해주세요

3. 8월 연합소회 안내

8월2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아벨라비치입니다.

차량배치를 위해 인원수를 확인해주세요

4. 엠마오 가는길 (KWE 31기 여자기수)

8월15일(월)-18일(목) 있습니다. 장소는 Redwood Glen, Io a Mar

6. 여름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물론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수고한 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Circuit Retreat

후레즈노 서킷리트라이 있습니다. 8월14일(주일)-16일(화) 장소: 쉼보레이크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 | 회중기도 | 성경봉독 | 점심봉사 |
|-------------|---------|---------------|-------------|
| 08월14일 | 김현덕 집사 | 윤문섭 장로 | 임동재 최성보 김현덕 |
| 08월21일 | 안미나 집사 | 안광비 집사 | 김규현 김형기 최승희 |
| 08월28일 | 구자홍 집사 | 안미나 집사 | 윤문섭 홍윤기 임동재 |
| 09월04일 | 구경숙 집사 | 구자홍 집사 | 김현덕 안광빈 구자홍 |
| 8월안내 | 김은정 구경숙 | 8월초불점화 | 최성보 최주리아 |



Fresno 후레즈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느리게 새로운 가치에 눈뜨기

버클리 기숙사에서 지낼 때입니다. 주로 차를 타고 다니던 길을 걷게된 적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느끼는 건, 차로 지나갈 때 보지 못한 것을 꼼꼼히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길거리의 의미까지 느껴지는 특별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간을 내서 걸은 적이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과 바다가 다르게 보입니다. 집앞에 핀 꽃, 문고리, 창문모양, 기와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버클리의 집은 똑같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집마다 독특한 선과 모양이 있으니, 걷는 동안 지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길을 걷는게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늘 다니던 길이 새로운 길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빠른 것이 좋지만, 느리게 걷게 되면, 빨랐을 때와 다른 느낌의 새로움을 맛보는 것 또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면서도 빠르게 살아갑니다. 느린 것을 답답해 하거나 무능한 것으로 생각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빠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느린것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운 눈을 뜰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며 방송인인 에디 칸토는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질주하는 전형적인 미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낸 짝막한 한 줄의 편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어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이랬습니다. “내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단다.”

에디 칸토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수첩에 네 가지 질문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1. 내가 하는 일은 과연 가치 있는가?
2.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3. 나는 인생의 참된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4. 나는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것인가?

분주하고 빠르고 신속한 것이 최고로 인정받는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의 발걸음도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주하고 빠르고 신속한 것이 좋을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놓치고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쯤은 삶에 가장 느긋한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것을 보게되고 마음으로 담지 못한것을 담아 두게 될것입니다.

Fresn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의 제자되는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 입례찬양 | | | |
|------------------------|-----|------------|--|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 | |
| 경배와찬양 Praise & Worship | 찬양팀 | | |
| ❖ 입례송 Anthem | 다함께 | 21장 (통21장) | |

| 고백 | | | |
|--------------------|--------|------|--|
| ❖ 신앙고백 Confession | 다함께 | 사도신경 | |
| ❖ 영광송 Gloria Patri | 다같이 | 3장 | |
| 기도 Prayer | 김현덕 집사 | | |

| 말씀선포 | | | |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윤문섭 장로 | 히11:29-12:2 | |
| 설교 Sermon | 김규현 목사 | | |

예수를 바라보자

| 헌신과 나눔 | | | |
|---------------------|--------|-------------|--|
| 봉헌송 Offering | 다함께 | 580장(통371장) | |
| ❖ 찬양 Hymn | 다함께 | 1장 | |
| 교회소식 / Announcement | 인도자 | | |
| ❖ 축도 / Benediction | 김규현 목사 | | |
|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 | | |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2.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위하여
3.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을 위해서
5. 질병기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7. 김보흠집사와 변영근 성도를 위해
8. 이수경 집사 시아버지를 위해
9. 임동재 권사 백내장 재수술과 구경숙 집사 백내장 수술을 위해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 | |
|------|---|
| 주일헌금 | 김혜진 김남국 박순옥 엄선영 윤문섭 임경희 이수경 임수호 차석준 차경미 교회학교 무명 |
| 감사헌금 | 김규현 홍윤정 이수경 임동재 임정원 최승희 최미란 홍윤기 김의숙 |
| 십일조 | 홍윤기 김의숙 |
| 기타 | 합계 \$1,954.01 |

예배안내

| | | |
|-----------|---------------------|---------------------------|
| 새벽기도회 | 화-토 새벽 6시 | 바울서신 강해 |
| 수요성경공부 | 저녁 7시 30분 | 예수님의 사람 |
| 주일예배 | 낮: 12시30분 저녁: 7시 | 회의실 교회력설교 주일저녁 찬양예배 |
| 토요일아침성경공부 | 아침 7시 | 예수님의 사람 |

